



손흥민이 10일(한국시간) 이란국가대표팀훈련센터에서 몸을 풀고 있다. 박지성~기성용에 이어 대표팀 주장을 물려받은 손흥민이 12일 열릴 이란전에서 화려한 골 찬치를 벌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제공 | 대한축구협회

10년만의 이란전 승리 캡틴 손흥민을 믿어봐

시리아전서 2년만에 A매치 필드골 3위권과 승점 5점차 여유 생겼지만 2011년 이란 칸 후 4연패·2무승부 이란전 악몽 청산...풀어야 할 숙제

한국	구분	이란
파울루 벤투	감독	드라간 스키프치치
36위	FIFA 평강(9월)	22위
10회	월드컵 본선 진출	5회
9승9무13패	역대 전적	13승9무9패
A조 2위(2승1무)	최종예선 중간순위	A조 1위(3승)

마음은 조금하고 몸도 무거웠지만 에이스는 포기하지 않았다. 많은 이들이 곧 붙어 닥칠 처참한 운명을 직감하며 고개 숙인 그 순간, 상대 문전 오른쪽에 있던 '캡틴'의 왼발이 번뜩였다. 한국축구가 2022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3차전에서 짜릿한 2-1 승리를 완성한 장면이다.

파울루 벤투 감독(포르투갈)이 이끄는 축구국가대표팀은 7일 안산와스타디움에서 펼쳐진 아시아 최종예선 홈경기에서 후반 44분 '손세이셔널' 손흥민(29·토트넘)의 결승골로 시리아를 제압하며 2승1무, 승점 7로 조 2위를 지켰다. 이어진 타 팀 경기 결과, 3위권과 격차가 5점까지 벌어져 여유가 생겼으나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진짜 승부가 찾아온다. 12일 오후 10시 30분(한국시간) '원정 팀의 무덤'으로 불리는 테헤란의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이란과 4차전을 갖는다. 최종예선 첫 원정경기다. 한국은 9승9무13패로 역대 전적에서 이란에 크게 밀린다. 마지막 승리의 기록은 2011년 1월 도하에서 펼쳐진 카타르 아시안컵 8강전(2-1)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 후 4연패를 하다 최근 2경기 연속 무승부로 웃지 못했다.

9일 현지 입성한 손흥민의 어깨가 무겁지만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올해 6월 레바논과 월드컵 2차 예선 홈경기에서 페널티킥(PK)을 성공시킨 그는 2019년 10월 10일 슬리랑카와 월드컵 2차 예선 이후 2년 만에 A매치 필드골을 터트리

기세를 끌어올렸다.

시리아전에서 손흥민의 퍼포먼스는 인상적이었다. 벤투 감독은 그에게 공격 2선을 맡기며 수비 부담을 줄여줬고, 황의조(29·보르도)가 교체 아웃된 뒤 최전방으로 전진시켰는데, 경기 막판 김민재(25·페네르바체)의 헤더 도움을 받아 한국을 구했다. 이 경기를 잡지 못했다면 A대표팀은 홈 3연전에서 승점 5에 그쳐 월드컵 본선 시나리오가 크게 꼬일 뻔했다.

A대표팀 주장으로 마지막 이란전 승리를 맞본 이는 박지성(은퇴)이다. 이란을 누른 2011 아시안컵을 끝으로 태극마크를 반납한 그는 2009년 2월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0남아공월드컵 최종예선(1-1) 대결을 앞두고 "10만 관중의 아자디는 한국에게는 지옥이 될 것"이라고 도발한 상대 주장 네쿠남(은퇴)에게 "천당이 될지, 지옥이 될지 다시 얘기하자"고 일갈해 한국 팬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했다.

박지성~기성용(32·FC서울)에 이어 A대표팀 주장을 물려받은 손흥민이 시원한 경기력과 깔끔한 결과로 오랜 악몽을 끌어줄길 모두가 기대한다. 특히 벤투 감독은 빅 매치에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어 '속적' 이란 원정은 손흥민이 '월드클래스' 진가를 발휘하는 데 최적의 무대다. "원정은 모두 같은 조건이다. (이란전의) 안 좋은 흐름을 털어내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란 손흥민의 단단한 다짐이 지켜질 수 있을까?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꾸역꾸역' 이겨 더 신경쓰이는 이란

히점 많아보여도 늘 승리 챙겨 역습 좋고 좌우 날개 날카로워 스코치치 체제서 A매치 10연승 (이란 감독)

이란축구는 재미없다. 단단한 피지컬과 힘을 앞세운 그들의 템포가 빠른 것도, 경기력이 아름다운 것도 아니다. 그런데 참 묘하다. 경기 중 다소 수세에 몰리더라도 실점할 것이라 느낌이 없고, 패할 것 같다는 인상은 더욱 없다.

이란은 예쁜 축구와 거리가 멀다. 어찌 보면 참 못났다. 볼을 옥여 넣는 선 굵은 특유의 컬러에는 허점이 가득해 보인다. 하지만 결과는 꼬박꼬박 챙긴다. 2022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여정이 딱 그렇다.

이란은 '페르시아 라이벌' 이라크만 3-0으로 격파했을 뿐, 시리아와 홈경기, 아랍에미리트(UAE) 원정에서 후반 막판 페널티킥(PK)을 실축하는 등 고전 끝에 1-0으로 이겼다. 그럼에도 3전승(승점 9)으로 조 1위, 한국(2승1무·승점 7)에 앞섰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다. 어떤 형태로든 승수를 꾸역꾸역 쌓아 올리는 팀은 강하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특유의 '승리 DNA'가 작동한다는 의미다. 잘 틀어막고 기회를 엿보다 힘껏 철퇴를 휘둘러 재

미를 본 이란의 자신감이 여기서 기인한다.

실제로 이란은 크로아티아 출신의 드라간 스키프치치 감독이 부임한 이후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3승을 포함해 최근 A매치 10연승을 질주하고 있다. 이는 이란축구 사상 최초이자 최고의 기록이다. 과거 이란 지휘봉을 잡은 카를로스 케이로스 감독(포르투갈) 이상의 높은 성과를 올릴 것이라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이란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역습에 능하다. 최후방을 책임진 중앙수비수 쇼자 칼리자데(알 라얀)와 호세인 카나니(알 아흘리)의 안정감도 대단하지만 스트라이커 메흐디 테레미(포르투)와 좌우 날개 알리레자 자한바크슈(페예노르트), 알리 골리자데(샤를루아)의 한방도 아주 날카롭다.

최종예선 2골을 기록한 자한바크슈는 한국과 12일(한국시간) 테헤란 결전을 앞두고 "80% 이상 해외에서 뛰는 이란은 역대 최강이다. 세계 흐름을 잘 파악했고, 경쟁력도 좋다. 조직력도 그대로다. 우리 잠재력은 월드컵 16강 이상"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9일부터 3박 5일의 이란 원정에 인한 파울루 벤투 감독(포르투갈)이 이끄는 태극전사들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대비가 필요하다.

남정현 기자

이란전 무관중...큰 걱정 덜었다

아자디스타디움 1만명 입장 계획 승인 못받아 VAR도 운영 않는 한국-이란전 또다른 변수로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진출에 도전할 한국축구의 큰 걱정이 사라졌다. 현지 팬들의 광적 응원이다.

이란축구협회는 10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12일 오후 10시 30분 테헤란의 아자디스타디움에서 열릴 한국과 이란의 2022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4차전을 무관중 경기로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원정 팀의 무덤'으로 불리는 해발 1273m 고지대에 위치한 아자디스타디움의 공식 수용인원은 8만 명이지만 입석까지 포함해 최대 10만여 명까지 입장할 수 있다. 한국은 역대 이란 원정에서 최근 3연패를 포함해 2무5패를 기록 중이다.

당초 이란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1만여 명을 입장시킬 계획이었으나 국제축구연맹(FIFA) 승인을 받지 못해 무관중이 결정됐다.

여기에 또 다른 변수도 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아 온 이란이 반입한 비디오판독(VAR) 시스템을 아시아축구연맹(AFC)이 승인하지 않아 한국-이란전은 다른 최종예선 경기와 달리 VAR을 운영하지 않는다. 남정현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주부가 당신의 마지막 직함이 되지 않도록'

아내에서 다시 매니저로
엄마에서 다시 플래너로
경력이 지어준 이름을 되찾길 바라는
여성들의 다시 쓰는 이력서를 응원합니다

**발전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금융의 첫걸음
BIG STEP FOR TOMORROW**

경력보유여성 매장 지원 트랙은 인턴을 찾는 사회역신기업과 경력보유여성을 매칭하는 상생협력 프로그램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금융투자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데이터 · 링크